

철도신호기술의 독립선언! 열차제어시스템(KTCS) 공청회 개최

-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KTCS) 개발을 위한 철도 전문가들의 토론과 화합의 한마당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2015년 4월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현대로템 등 공공기관, 학계, 기업을 망라한 43개 기관 120여명의 철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LTE-R (LTE-Railway) 기반의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KTCS : Korea Train Control System)의 개발 방향과 향후 비전을 모색하는 “열차제어시스템(KTCS) 국산화를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공청회에서는 “한국철도신호의 국산화, 표준화, 국제화, 사업화 방향”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해외 철도신호 발전동향 및 한국철도산업의 시사점” 등 4건의 주제발표도 함께 이루어 졌다.

KTCS는 철도통합무선망 LTE-R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열차를 제어하는 기술로써, 그동안 철도운영의 핵심인 열차 제어기술이 해외기술에 의존해 온 현실에 철도기관과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기술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일반·고속철도용 무선통신 및 제어시스템 실용화”의 주관연구단으로 선정되어,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함께 LTE-R기반의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인 KTCS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본 과정을 통해 국내기술로 개발될 KTCS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원주~강릉 간 철도노선 시범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모든 국내철도의 열차제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게 될 것이다.

이는 116년의 장구한 우리나라 철도역사에서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대의 혁신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무선제어연구단 윤학선 박사는 “KTCS의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그동안 해외의존일변도였던 열차제어기술의 독립과 더불어 해외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KTCS의 성공과 해외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였다.

<붙임> 공청회 사진



철도공단, 철도관련 학과 대학생 대상으로 현장교육 시행

- 건설현장 견학, 자기부상열차 시승 등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 얻어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산학협력 및 미래철도발전을 위해 철도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4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철도건설현장 견학, 자기부상열차 시승 등 ‘눈으로 보는 현장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철도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의식 이론교육과 안전, 품질, 공정관리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철도교량 및 터널 건설현장 견학과 자기부상열차 시승, 400km/h급 고속철도 개발현황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철도기술인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철도공단, 눈으로 보는 현장교육]



원주-강릉 철도건설 1공구 광터고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감리단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2015년 경영진 워크숍’ 개최

-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소통과 공유를 통한 해결점 모색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금) 대전 본사 회의실에서 본사 처장 이상 간부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2015년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철도시설관리자 역할 강화 방안, 공공기관 정상화 등 대내외 주요 경영현안 14개 과제에 대해 전사적인 공유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신규 철도사업 확대를 위한 철도투자 평가제도 개선, 철도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효율화 등 철도시설관리자 역할 강화, 해외철도사업 진출 확대 등 미래먹거리 사업 창출과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정상화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용품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철도용품 표준규격 관리 강화,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선 등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그간 본부단위로 고민해 오던 경영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있는 토론회였으며, 이를 계기로 부서간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단을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회는 더욱 살리고 위기는 기회로 전환하여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철도건설현장 대상, 우기대비 재난대응 비상체제’ 가동

- 92곳 철도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

안전품질실(실장 권오혁)은 철도건설 현장의 재난을 예방하고 초기대응을 강화하고자 5월6일부터 5월22일까지 13일간 전국 92개소의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5월15일~10월15일까지 5개월간 ‘재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공단직원 뿐 아니라, 국토부, 철도공사, 교통공단 등 내외부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및 가설도로를 중점점검하고,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대기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 기상청 예보가 있어, 호우에 의한 토사유실, 지반약화로 인한 인근 철도시설의 붕괴 우려가 높은 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품질실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철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정책세미나’ 개최

- 철도공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조기구현을 위한 기반 강화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는 한국정책학회(회장 권기현)와 공동으로 5월7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 대비 한반도 철도망 확충 및 유라시아철도 연결기반 마련을 위한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정책세미나」를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후원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박사의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철도망 구상 방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박사의 ‘유라시아철도 연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한 후,

<주제발표 요약>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전략 분석
- 경쟁력 있는 유라시아 수송망 구축 및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방향
-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상호연계를 위한 상이한 철도시스템 차이와 극복방안

이해영 영남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 조무영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 강계상 경희대 교수, ▲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 강갑생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팀장, ▲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였다.

<주요 토론내용 요약>

‘한반도 철도망 구축’은 남북이 육로로 연결되어 대륙진출의 결정적 계기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

- 남북철도 단절구간의 철도연결 사업 조속 추진
- 노후화된 북한철도 시설의 현대화
- 국가간 협력을 통한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강화
- 남북한 철도관련법의 제도적 통합 필요성 등

강영일 이사장은 “21세기 한국철도는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의 중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경원선 등 단절된 남북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진전에 따라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한 한반도 철도망 구상 등 실행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